



# 農業環境 파괴를 막자

## 화학비료와 농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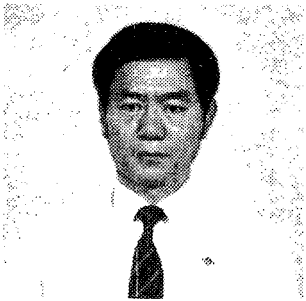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켜주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형태이다.

원시인들이 사냥이나 떠돌이 생활을 벗어나 불박이 생활을 영위하며 자급자족의 영농을 하고 있을 때는 공해나 환경파괴나 하는 어휘가 필요치 않을만큼 자연의 섭리에 가장 잘 순응하는 농사를 지어왔었으나, 지난 61년 이래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따르는 시장경제의 대형화경향에 따라 농산물도 다수확 일변도의 증산정책을 펴나가면서 인류의 건강이나 자연의 보존과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화학비료와 농약위주의 언필칭 과학영농의 길을 달려오게 되었다.

그 결과로 다수확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하였다고 보겠으나, 화학비료의 지속적인 남용에 따른 토양의 산성화와 염류집적·연작장해·생리장해 등의 문제점을 안게 되면서 영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산성토양 속에서 번식이 왕성한 특성을 가진 병원균·해충의 창궐로 여러가지 병해충의 침해를 당하게 되자 그들을 퇴치시키고자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서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는 악화일로를 치닫게 된 것이다.

화학비료의 과용으로 하천이나 호수로 유실된 비료성분이 수질의 부영양화현상(富營養化現狀)을 초래하여 물이 썩거나 조류(藻類)의 급속한 번식으로 산소부족을 일으키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들을 빈번히 접하게 되었다.

62년 배부식분무기가 처음 등장하면서 경쟁적으로 뿌려대기 시작한 농약이 87년말 현재 416



鄭眞永 / 1943년 전남생. 서울대 농대를 졸업했다. 농협중앙회가 주는 새농민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73년에는 일본에서 유기농업연수를 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환경연구회의 상무이사.



■ 비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후 쓰고난 비닐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

중에 달하는 많은 종류가 개발되고 연간 1정보 당 성분량으로 10.8 kg이나 되는 막대한 양을 살포하게 되면서도 질병이나 해충은 더욱 격발현상(激發現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자연계의 유효균·익충들이 전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어린시절 반찬거리로도 훌륭한 몫을 해냈던 메뚜기가 거의 없어져가고 있으며, 특히 먹지는 못하지만 흑갈색을 띤 모메뚜기는 멸종된 것이 아닌가 염려되고 있으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제비도 20년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매일 2 종류의 곤충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이런 추세로 자연계를 멸달시켜 갈 때, 최종적으로는 인류의 멸망 또한 불을 보듯 흰한 일이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화학비료와 농약 위주의 “화학영농”은 선진국 모두가 차례로 답습하고 있었으나, 전술한 문제점들이 하나둘 표출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는 과정에서 근래에 유기농업(有機農業)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시

키는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

유기농업을 철저히 실천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가면서도 양질의 농산물을 다수확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자연생태계를 제대로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민은 물론 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빈병처리

요즈음 농촌의 오솔길을 거니드라면 각종의 농약병이나 술병 또는 빈강통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빈병들은 일차적으로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나, 보다 근본적인 피해로는 논밭에 무심히 던져버린 빈병들이 쟁기질하는 과정에서 깨지면서 그로 인하여 밭이나 손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신세를 지는 일이 너무도 많음을 볼 때, 농민 스스로는 물론 농촌을 지나는 행락객들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하다 못해 잔인한 일



농촌쓰레기 또한 도시쓰레기 못지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들을 서슴없이 자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벌린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농민들은 우선 자신들의 피해를 면키 위해서라도 빈 농약병들을 철저히 수거하여 폐품재활용에 적극 협조토록 제도해 나가야 되겠으며, 행락객들도 우리의 형제자매인 농민들의 안전과 환경미화를 위하여 꼭 자기가 마신 음료수의 빈병은 인근의 쓰레기장이나 집에 가져와서 버리도록 다짐해야 되겠다.

### 폐비닐 수거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녹색혁명을 이룩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비닐의 개발과 농업에의 사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줄 안다.

그러나, 하우스나 멀칭용으로 사용하고 난 비닐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려 바람에 날려다니거나 땅속에 묻혀, 토양중의 공기·수분의 이행을 막고 뿌리의 신장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누적되어갈 때 결국은 폐비닐때문에 작물을 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크다 하겠다.

또한 홍수로 침수된 밭에서 떠내려간 비닐조각이 하천주위의 나무가지에 걸려 물이 빠진 뒤에 보면 온통 흰누더기를 걸친 듯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볼 때 농민들의 철저한 수거가 절실하다고 본다.

### 맺는말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삼천리 금수강산(三千里 錦繡江山)이라 일컬어 왔으며 국민 모두가 그말을 진심으로 믿고 자랑과 감사의 일념으로 대대로 가꾸어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영농에 빠져들면서 본의 아니게 전술한 바와 같은 힘에 겨운 공해문제들을 떠안게 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개선광정하여 하나뿐인 우리 강토(疆土)의 물과 토양과 자연환경을 더욱 맑게 더욱 깨끗하게 가다듬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고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이다. \*